

구례군, 논콩 60톤 (주)쿠팡양곡에 수매 “농가소득 증대 기여”

논콩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추진

구례지리산콩영농조합 대표 “친환경 콩 생산 주력”

구례군은 지난해 12월29일 구례지리산콩 영농조합법인에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6월 부터 재배한 논콩 60톤을 (주)쿠팡양곡에 수매했다.

구례지리산콩영농조합법인은 2020년 7월에 설립하여 151명의 농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논에 비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위해 2020년

부터 본격적으로 콩 품목을 선택 구례지리산콩영농조합법인과 (주)쿠팡양곡이 계약 재배하여 올해는 2억9천7백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

구례군에서는 새해 영농기술교육을 통한 재배기술을 농가에 교육하고 있으며 2023년에도 친환경 콩 재배 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작물 생육 개선제 및 조류 피해 방지망을

지원하는 등 영농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남도 자체사업인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에 콩을 우선순위로 배정하며, 파종과 수확에 필요한 농업기계장비 15대 이상을 확보해 임대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구례지리산콩영농조합법인 고경주 대표는 “(주)쿠팡양곡과 계약재배로 판로에 문제가 없고 행정에서 여러 방면으로 지원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회원들과 친환경 콩 생산에 주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구례=박진호기자



화순군, 온라인 농특산물 쇼핑몰 ‘화순팜’ 새 CI 선보여



화순군이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화순팜’의 가치와 의미를 담은 CI(기업 이미지)

를 새롭게 선보인다.

그동안 화순군은 ‘자연속앰’과 ‘화순팜’을 함께 사용해 왔다. 이로 인해, 소비자 인식에 혼란을 줘 통일된 기업 이미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군은 화순팜의 CI를 새롭게 변경해 정체성을 확립할 방침이다.

새 CI는 화순의 ‘ㅎ’을 모자를 쓰고 있는

농부로 형상화 했다. 모자 쓴 농부가 청정지역 먹거리를 의미하는 해, 나무, 밭을 품고 있는 모습을 통해 자연으로부터 오는 농산물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화순군 관계자는 “CI 변경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발전된 화순팜을 선보일 예정이다”며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기자

담양군, 설맞이 담양 농특산물 특별 기획전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명절 할인행사 전개

담양군은 오는 1월 31일까지 계묘년 새해맞이 지역 농특산물 전문 판매장 ‘담양장터’에서 설맞이 20%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담양장터는 담양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위치한 면적 150㎡에 담양군 가공식품 등을 온오프라인 판매를 할 수 있는 지역 농특산물 전문 판매장으로, 농특산물 전시 및 홍보는 담양군이, 판매장은 지역농산물 가공업체가 모여 담양장터 주식회사를 설립해 직접 운영하고 있다.

담양장터에는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최우수상을 수상한 대숲맑은 담양 쌀을 포함한 지역의 62개 업체에서 생산되는 600여 개 특산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다양한 소비층을 겨냥한 치즈돈가스, 요거트, 오란다, 건강보조식품 등 담양산 식품까지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행사기간 내 택배 주문은 1월 17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온라인(www.damyangmk.kr)과 모바일 앱 구매고객 중 9명의 구매왕을 선정



해 한우선물세트, 대숲맑은 담양쌀 등을 증정하는 사은행사도 진행한다.

이병노 군수는 “명절 선물 부담은 덜고 마음은 풍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품격 높은 담양 농특산물을 엄선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준비한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나주 다시면 지사협, 지역 아동 유리공예 ‘꿈꾸는 공방’ 호응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지역아동센터 아동 30여명 대상 추진



나주시 다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김경만)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문화활동 기회 제공을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해 큰 호응을 얻었다.

다시면은 이번 달 지역아동센터 아동 30여

명을 대상으로 유리공예 프로그램인 ‘다시, 꿈꾸는 공방’을 총 3회에 걸쳐 추진했다고 지난해 12월30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앞서 지난 8월 도자기 공예로 시작됐으며 아동들의 높은 참여율과 만족도에

힘입어 12월 유리공예로 재차 기획해 진행됐다.

다시초교 3학년 김 모 군은 “방과 후에는 대부분 집에서 핸드폰만 보며 지루한 시간을 보냈었는데 친구들과 다 같이 모여 세상에 하나뿐인 나의 크리스마스 트리 조명을 만들었다”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김경만 지사협 위원장은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을 제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유리공예 프로그램을 추진했다”라며 “아이들이 좋아하니 보람있고 기쁘다”라고 말했다.

다시면 지사협은 올 한해 ‘저소득 홀몸 어르신 및 장애인 취약계층 100가구 전동리모컨 설치’, ‘취약계층 9가구 겨울철 난방유 지원’, ‘보송보송 이불빨래 지원’, ‘취약계층 35가구 밀반찬 지원’ 등 맞춤형 복지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손선 면장은 “올 한 해 다양한 복지특화사업들로 다시면을 따뜻하게 품성하게 채워주신 지사협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라며 “내년에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특화사업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나주=송준표기자

곡성 로즈밸리 복합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곡성군이 지난해 12월29일 곡성로즈밸리복합단지(주)와 관광레저 및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곡성 로즈밸리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곡성을 일원에 산업단지, 관광 및레저 시설, 스마트팜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8,700억 원(민자)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협약서에는 로즈밸리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행정적 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곡성군은 로즈밸리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

속했다. 곡성군은 복합단지가 계획대로 조성된다면 지역 주민 약 75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 및 산업 기반 확대, 생산 증대로 인한 지방세 등 세수 증대,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위기 극복 효과 등도 기대하고 있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의 미래 산업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우리 군에 경제적 파급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곡성 로즈밸리 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행정적인 차원에서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곡성=양해영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SPS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엔텍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미날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판